

응답하라!!! 북위 35° 동경 127°

국민교육 반석 되고픈 전남도 화순 동면초등학교



▲ 양은하 교장

좌표 북위 35도 동경 127도가 가리키는 곳은 지구촌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초의 789호 동면초등학교를 가리킨다. ‘국민교육의 반석’이 되는 초등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동면초등학교가 꿈꾸는 세상을 들여다보자.

정문에서 바라보는 동면초등학교의 교지면적은 26,192㎡로 화순군의 자랑인 하니울 크기의 반 이상이다. 건축면적은 6천985㎡인데 학생 1인당 제공되는 평균 시설 면적이 287평으로 50평 아파트 5채보다 훨씬 넓다.

다양한 수목이 자라는 여유로운 잔디정원에는 다람쥐와 너구리가 놀다가고 천연잔디운동장은 주말이면 광주나 화순 등 인근지역에서 놀러와 가족단위 피크닉을 즐기는 쉼터이다.

아빠들은 아이들과 풋살을 즐기고 엄마들은 정원엔 수유모자를 옆에 두고 수다를 즐기는 모습이 경쾌하다. 학교 뒷산 풍채와 둘레길은 남녀노소 난이도에 따라 4코스의 트레킹을 4개월 즐길 수 있는 동면초등학교가 바로 친환경 학교이다.

동면초등학교는 2016년 11월 현재 병설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7학급(도움반 포함)이며 원아와 학생 수는 모두 합해 딱 100명이다. 학급별 학생 수는 평균 13명이며 교직원 수는 36명인데 이 가운데 담임교사와 교감교사는 평균 30세로 무서울 것 없어 열정을 불사름 연령대이다.

학생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전후 8년을 살펴보면 평균 81.5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학생 수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화순교육지원청의 재한작공등학교제 시행은 동면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읍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이고, 3대의

군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는데 주행시간이 20분 이내이다. 이에 더하여 2017학년도부터 읍내학생의 통학을 위한 전용 예류버스가 화순군으로부터 지원되어 동면초등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여건이 되었다.

2001년 37억8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의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로 신축된 동면초등학교는 교육시설도 남다르다.

입체적으로 설계된 좌석배치로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많은 교육활동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청각실에서는 방과후학교활동 및 동아리 부서인 밴드부가 상시 연습할 수 있고 저녁시간을 이용해 매주 4시간씩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임마랑 밴드가 운영된다.

급식실은 장소가 넓어 교대하지 않고 전교생이 한자리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급식의 질이 좋아서 “오늘 내일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싶어요.”라는 자녀의 말을 학부모가 전하고 교직원엔 출장을 내자다가도 학교로 돌아와 식사를 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

동면초등학교는 무용이나 태권도를 익힐 수 있는 유아급 이외에 미술실이 교실 두 칸 규모로 큰 다목적실이며서 공예활동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학교에는 전자책읽기 5개 전자자료개 디지털게시판 등이 구비되어 있어 교사들의 스마트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4교실에 완비되어 있는 자동수업녹화시스템은 작동방법이 쉬워서 학생들이 개인 학습산출물의 영상자료제조를 제작할 수 있고 교사들의 자기수업 녹화자료제조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시설 중 하나가 드라마 존이다. 누구나 보고싶은 영화를 볼 수 있고 인터넷상의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SW 선도학교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컴퓨터활용교육은 물론 코딩을 배우고 로봇을 움직여 보았던 컴퓨터실과 방방이 가정을 위해 저녁 8시까지 운영한 돌봄교실은 마지막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가까호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

저학년도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과 학원시설이 부럽지 않은 피아노실은 3대의 피아노가 있는 중앙의 대순공간과 방음벽시설이 된 8칸의 개인연습실마다 피아노가 1-2대씩 메트로놈과 함께 비치되어 있어서 피아노학원이 없어도 피아노는 맘껏 칠 수 있는 학교가 동면초등학교이다.

이 밖에도 내 놓을 수 있는 시설은 아주 많다. 체육관, 음악실, 보건실, 과학실 외에도 재력증진실, 상담실, 구강보건실, 한자실, 바이올린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면초등학교는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16부 운영하고 있다.

동면초등학교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의 비전을 ‘미래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둔다.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사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기 위해 노력한다. 즉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승기로서 ‘교육에 오롯한 스승’으로 ‘준비받는 학교’를 앞장서 이끌고, 학부모는 책 읽는 학부모, 교육재능기부자, 교육홍보대사로서 교육의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스스로 만든다.

교육지원청전인 교직원은 안전한 학교, 깨끗한 학교, 아름다운 학교를 조성하여 보람 있는 학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며, 지역사회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학도우미, 안전도우미, 모교기부기회를 결성하여 지역의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교육목표는 ‘예절을 잘 지키는 착한이, 스스로 공부하는 똑똑이, 날마다 꿈을 이루는 멋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튼튼이’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산하키의 생활화, 공수인사 습관화하기, 안전생활습관 형성 등 기본생



▲ 학교 정경



▲ 학생들과 함께



▲ 시청각실

활습관 정착에 노력하고, 재미 솜술 실력 속속, 밀다 집 학습, 교사의 자기 수업영상자료 갖기 등 기초기본 밀다집 학습 다지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외국어 소문능력 기르기, 365일점독서 20운동, 학년별 좋은 책 60권 필독서로 수료제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며, 공개 공감 경기,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 즐거운 체육 영역별 균형 있는 지도로 강인한 기초체력 단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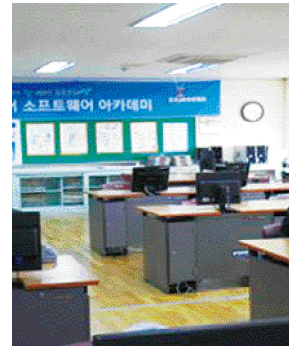
특색활동이러면 국제 교류활동을 들 수 있다. 동면초등학교는 화순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한해 중국전래의 전래소학교와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데 2017학년도엔 문화예술의 교류를 위한 국제화상수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호주, 필리핀, 국내 영호남 교류학교 1교 등 총 5개 학교의 글로벌 문화예술 교류 및 화상수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계획이 꿈으로 무산되지 않고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호주화상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AKC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호주 UNE 대학과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한 것은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동면초등학교 교장은 국민교육의 반석이 되는 초등



▲ 드라마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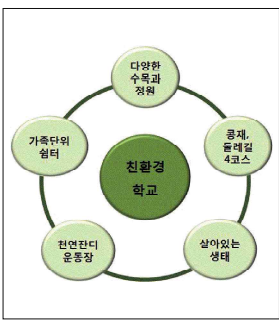
▲ 컴퓨터 실

교육을 꿈꾼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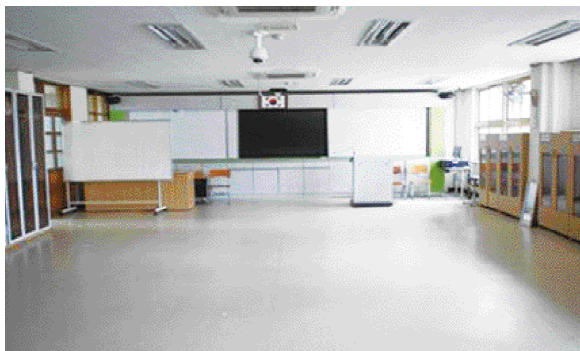
양은하 교장은 “초등학교 교육은 국민교육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을 통해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본능력’과 건전한 인성 함양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볼 때, 국민교육의 기반은 곧 초등학교 교육에 달려 있다는 소신을 갖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면초등학교는 경북초등학교와 용포초등학교 동면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통합한 학교인만큼 총동문회를 통한 선배들의 응속된 에너지가 동면초등학교가 비상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간절한 희망을 말한다.

저렴하게 울리는 구호소리가 없어도 오색찬란하고 휘황하게 빛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떤 지 그날 오고 싶어 하는 동면초등학교가 될 수 있다면, 국민교육의 반석이 되는 든든한 초등학교로서 2% 걸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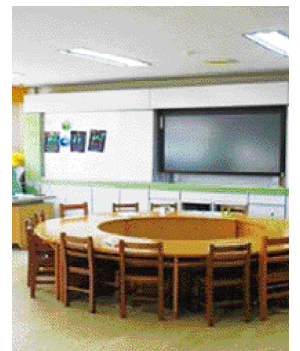
동면초등학교 교장은 국민교육의 반석이 되는 초등



▲ 급식실



▲ 다목적실



▲ 돌레일실